

설립취지문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왜국에 피노 중 유교를 전파해 '일본 유교의 비조'로 추앙받고 '종오소호' 선비정신으로 충의를 드높인 수은 강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사단법인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회를 설립한다.

- 다 음 -

1. 강항선생 춘향·추향대제
2. 강항선생 역사문화 전시관(교육관) 조성
3. '강항선생동상' 제막 및 전통문화 체험존 조성
4. 강항의 빛(영광)과 강항선생 피납 역사 문화 체험 행사
5. 청소년 인성교육 교실운영
6. 전국 학생강항선발 백일장대회
7. 학술연구 및 저작 편찬사업

사단법인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회

강항(姜沆)

이칭, 별칭	자 태초(太初), 호 수은(睡隱) 사숙재(私淑齋)
시대	조선
출생 - 사망	1567년(명종 22) ~ 1618년(광해군 10)
성격	문신
출신지	영광
성별	남
본관	진주(晉州)
저서(작품)	운제록(雲堤錄), 강감회요(綱鑑會要), 좌씨정화(左氏精華), 간양록(看羊錄), 문선찬주(文選纂註), 수은집(睡隱集)
대표관직(경력)	형조좌랑

생애 및 활동사항

강항[姜沆]선생은 좌찬성 사숙재 강희맹(姜希孟)의 5대손으로, 우계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93년 전주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교서관정자가 되었다. 이듬해 가주서를 거쳐 1595년 교서관박사가 되고, 1596년 공조좌랑과 이어 형조좌랑을 역임했다.

1597년 고향에 내려와 있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분호조참판 이광정(李光庭)의 종사관으로 군량미 수송의 임무를 맡았다. 아군의 전세가 불리해져 남원이 함락당하자 고향으로 내려와 순찰사 종사관 김상준(金尙騫)과 함께 격문을 돌려 의병 수백 인을 모았다.

영광이 함락되자 가족들을 거느리고 해로로 충무공 이순신장군 휘하로 들어가하고자 했다. 그러나 피노되어 일본으로 압송, 오즈성[大津城]에 유폐되고 말았다. 이곳에서 출석사(出石寺)의 중 요시히도[好仁]와 친교를 맺고 그로부터 일본의 역사·지리·관제 등을 알아내어 『적중견문록(賊中見聞錄)』에 수록, 각 3통을 필사한 후 3인을 통해 본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1598년 오사카[大阪]를 거쳐 교토[京都]의 후시미성[伏見城]으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순수좌(이후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로 작명함)를 적국에서 제자로 받아들이고 이후 사서오경을 발문하였고 아카마쓰[赤松廣通]에게는 수진본으로 강항휘초를 필사해 줘 현재 도쿄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세이카와 적송광통은 강항선생에게 조선의 과거 절차 및 춘추석전(春秋釋奠)·경연조저(經筵朝著)·공자묘(孔子廟) 등을 묻고 실천했으며, 또 상례·제례·복제 등을 배우고 익혔다.

일본 억류 중 틈틈이 은전을 모아 마침내 1600년에 배를 구입 후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 가족, 포로 38명을 구출해 귀국했다.

1602년 대구교수(大邱教授)에 임명되었으나 스스로 죄인이라 하여 곧 사직했으며, 1608년 순천교수(順天教授)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향리에서 독서와 후학 양성에만 전념, 동토 윤순거(尹舜舉) 등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선생은 1882년(고종 19)에 이조판서양관대제학(吏曹判書兩館大提學)이 추증되었다.

영광의 용계사(龍溪祠)·내산서원(內山書院)에 제향되고, 일본의 효고현[兵庫縣]에 있는 류노[龍野]성주아카마쓰[赤松廣通]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피노되어 왜국에 첫 도착지인 일본 에이메현 오즈시 시민회관에 수은강항선생일본연구회장 무라까미쓰네오에 의해 1990년에 ‘홍유강항선생현창비’를 건립했다.

1. 수은 강항의 생애

수은 강항은 세조 때 명신 사숙재 강희맹(1424~1483)의 5대손으로 1567년(명종 22년)에 영광군 불갑면 유봉마을에서 강극검의 5남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강항 집안은 고조부인 강학손(1455~1523, 강희맹의 차남)이 영광군으로 귀양 와 정착하였다.

◇ 말형 저어당(齷齪堂) 해(澮)에게 수학

강항(姜沆)은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하였다. 특히 기억력이 뛰어나서 글을 읽으면 곧

바로 외위 주변으로부터 神童이라 소문이 자자했다.

네 살 때 말형인 저어당(齟齬堂) 해(澮)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뛰어나게 잘해 소문이 널리 났다. 해(澮)는 우리나라의 대학자였던 율곡 이이의 문하로 학문이 깊은 분이였다. 해(澮)의 호는 저어당(齟齬堂)으로 율곡 이이(우계 성훈(成渾)과도 교류함)의 門下(문하)에서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학문을 쌓다가 신묘년(선조 24년, 1591년) 신묘사화(辛卯士禍)에 연좌되어 변고(變故)를 당하였다.(선조실록 1591년 8월 13일)

후에 강항(姜沆)이 벼슬을 할 때 우계(牛溪) 成渾(성훈)을 선조 28년 1594년 갑오 28세 때 절친했다는 이유 때문에 東人(동인)의 탄핵을 받아 校書館(교서관)에 분관되고 우계 成渾(성훈)선생의 문호가 쓸쓸하니 멀리 찾아 가 기도 하여 직,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 말형 저어당(齟齬堂) 해(澮)와 스승 율곡 이이(李珥)

말형 저어당(齟齬堂) 해(澮)와 成渾(성훈) 우계(牛溪)는 스승 율곡 이이(李珥)를 함께 수학했다.

成渾(성훈) 우계(牛溪)는 1535년에 낳아서 1598년에 세상을 뜨기까지 학문에 전념했고 벼슬을 사양해 오다가 1580년에 장령(掌令)의 벼슬에 나갔다. 1598년 좌참찬(左參贊)의 벼슬에 올라 일본과의 화해를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파주(坡州) 향리로 내려갔다.

일찍 율곡 이이(李珥)와 가깝게 지냈으나 학문은 퇴계 이황(李滉)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는 율곡과 사단칠정(四端七情)을 놓고 논쟁을 벌려 율곡 이이(李珥)의 학설을 반박 유학계에 커다란 話題(화제)를 일으켰다. 그는 또한 글씨가 뛰어났다.

이처럼 학문이 뛰어났던 율곡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배운 저어당(齟齬堂) 해(澮)를 스승으로 모신 강항의 어린 시절 학문은 재주가 비범한 데에 다가가 가르침이 또한

깊었기 때문에 일찍이 문리(文理)에 밝게 트였다.

강항은 이미 다섯 살에 벌써 글을 지을 줄 알았다.

당시 전라감사 신응시(辛應時)가 이 소문을 듣고 각(脚)자로 명제를 주니, 곧 각도만리심교각(脚到萬里心教脚; 다리가 만 리(萬里)를 가지만 그것은 마음이 다리를 시킨 것)이라 지어 신응시 전라감사를 놀라게 하였다.

◇ 맹자정의 일화

강항이 일곱 살 때에 중국고서를 판매하는 책장수가 불갑면 안맹마을을 지나가면서 어린 소년이 맹자(孟子)책을 읽어보기 위해 다가오자 맹랑하게 느낀 책장수가 그 소년을 골려줄 심산으로 이 책을 읽어보게 하고 맹자 1권에 대한 내기를 걸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나절 동안 그 책장수와 강항은 맹자책을 앞에 놓고 씨름을 벌인 일화로 유명하다.

결국 강항(姜沆)이 안맹마을에서 한나절 사이에 이것을 모두 암송(暗誦)하고 ‘이 책은 이미 내 머릿속에 다 들어 있으니 사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유봉마을로 가버렸다. 그 책장수는 놀랍고 기특하여 그 책을 소년에게 선물로 주려 하였으나 받지 않음으로 마을 어귀의 당산 나무에 매 달아 놓고 갔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후에 이 자리에 맹자정이라는 정자를 지어 강항(姜沆)의 천재성을 기려왔다. 지금도 그 자리(안맹마을) 부근에孟子(맹자)정 비가 서있다.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6월에 강항은 이광중 · 이용중 · 송약선 등과 함께 창의하여 양곡과 군기를 고경명 의병에 보냈다.

10월에는 영광군수 남궁현이 친상으로 사직하여 민심이 흉흉하였다. 이응중 등 영광 선비 55명은 자발적으로 영광군 향토방위에 나섰는데 강항도 집안 친척 강태, 강락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영광군 영광읍 임진수성사에는 이들 55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1593년 12월27일 세자 광해군(광해군은 분조 역할을 함)은 전주에서 과거를 실시하여 문신 11명, 무신 1천6백 명을 뽑았다. 이 때 강항은 병과(丙科) 5번째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강항은 우계 성혼(成渾, 1535~1598)의 문인으로 박사 · 전적을 거쳐, 1596년 가을에 공조좌랑, 겨울에는 형조좌랑이 되었고, 1597년 2월에는 영광에서 휴가 중이었다.

5월말에 강항은 호조참판 이광정의 보좌역으로 남원성 군량미 운반을 담당했으나 남원성이 왜군에게 함락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강항은 여러 읍에 격문을 보내 의병 수 백 명을 모집했지만 왜군이 전라도를 침탈하자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9월 14일에 왜적들이 영광군을 온통 불태우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자, 강항은 둘째 형 준(濬), 셋째 형 환(渙) 등과 함께 배를 타고 피신했다.

20일에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싸우기로 하였는데, 뱃사공이 21일 밤에 신안 어의도로 뱃머리를 돌려 부친이 탄 배와 헤어지고 말았다.

23일 아침에 강항 일행은 부친을 찾아 영광군 염산면 논잠포로 향했다. 그런데 왜군 수군이 나타나 강항 일가는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후 왜국의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을 비롯한 10명의 조선인 유학자에게 사서오경을 배끼게 하고, 자신이 직접 왜훈을 붙였다. 이 책이 바로 사서오경에 대한 주자의 집주에 일본식 훈을 단 『사서오경 왜훈(四書五經倭訓)』이다.

한편 세이카는 강항이 1600년에 귀국한 후에도 주자학에 심취했고, 4천왕이라 불리는 수제자들, 즉 하야시 라잔과 마츠나가 세키고 · 호리 교안 · 나와 가츠쇼를 키웠다.

그의 제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이는 하야시 라잔(1583~1657)이다. 라잔은 1605년에 세이카의 추천으로 이에야스에게 발탁되어 스푸성의 서고관리 담당자로 임명되었고, 히데타다(1605년), 이에미쓰(1624년), 이에츠나(1655년)의 에도 막부에서 4대째 대학두(大學頭)로 일하여 ‘사상계의 쇼군’이라 불렸다.(대학두는 에도 막부의 관학 학문소의 최고 책임자, 우리나라로 치면 대제학과 대사성을 겸임한 벼슬에 해당한다.)

에도 시대 이전까지 일본은 무(武)와 불(佛)의 나라였다. 그런데 에도시대는 무(武)의 사무라이가 유문(儒文)을 읽었다. 즉 문(文)을 통하여 사무라이의 신분 질서가 확립되어 에도 시대 27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졌다.

문(文)의 사무라이를 확립시킨 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고, 사상적으로 뒷받침 한 이는 일본 근세 유학의 비조(鼻祖) 후지와라 세이카였다. 그리고 세이카 뒤에는 조선 선비 강항이 있었다.

1600년 4월 2일에 강항 일가와 선비들 38명은 후시미성을 떠나 귀국길에 올라 대마도를 거쳐 5월 19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에 도착하자 선조는 강항을 불렀다. 적중 사정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6월 9일에 강항은 선조를 뵈고 왜국 사정을 알렸다.(1600년 6월 9일자 선조실록 참조) 이후 강항은 서울에 머물면서 승정원과 예조, 비변사 등의 자문에 응했고, 8월 1일에는 선조로부터 술과 말 한필을 하사받았다.

9월 초에 강항은 고향인 영광군 유봉마을에 돌아왔다. 그리고 72세의 부친 강극검에게 큰 절을 올릴 수 있었다.

2. 조선중기의 학파

유학은 程朱의 道學을 수용하여 치밀한 개념 분석과 엄격한 실천 행위를 강조했는데, 특히 중기에 배출된 知的 巨人들을 중심으로 학문의 활동과 내용에서 일정한 연관성 혹은 공통성을 지닌 집단을 양산하였다. 이를 ‘학파’라고 부른다면, 花潭학파 · 退溪학파 · 南冥학파 · 栗谷학파는 이 시기를 대표한다.

趙光祖(靜庵, 1482~1519)가 道學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린 이후, 경기도 개성에서는 徐敬德(花潭, 1489~1546)이, 파주에서는 成渾(牛溪, 1535~1598)이, 황해도 해주에서는 李珥(栗谷, 1536~1584)가, 영남 동쪽에서는 李彥迪(晦齋, 1491~1553)이, 영남 북쪽에서는 李滉(退溪, 1501~1570)이, 영남 남쪽에서는 曹植(南冥, 1501~1572)이 학파를 형성하여 도학을 전수하였다.

호남에서도 북쪽에서는 李恒(一齋, 1499~1576)이, 남쪽에서는 金麟厚(河西, 1510~1560)와 奇大升(高峰, 1527~1572) 등이 독특한 학풍을 내세워 영향력을 발휘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항 · 김인후 · 기대승 사후에도 17세기 초, 중반에 도학을 강론하여 제자들을 양성한

의 유학자들이 호남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예컨대 담양 대산의 金大器(晩德, 1557~1631), 영광 유봉의 姜沆(睡隱, 1567~1618), 임실 덕촌의 趙平(雲壑, 1569~1647), 보성 우산의 安邦俊(隱峯, 1573~1654)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호남의 유학이 기축옥사와 임진·정유왜란을 거치면서 점차 학문적 기반이 약화되고, 더구나 17세기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학인들이 경기와 호서지역으로 유학을 떠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학의 촛불을 끄지 않았다.

강항은 영광군 남쪽 불갑산 아래 유봉리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가까운 雲堤 마을로 이사했는데, 관직생활과 포로생활을 뺀 나머지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강학하였다. 그는 팔대(八代) 문헌가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이미 뛰어난 문장 실력과 해박한 역사 지식을 인정받았고, 3년여의 포로생활 중에 보여준 탁월한 氣節은 일본인도 존경할 정도였다.

강항의 수제자 尹舜擧는 스승의 학행을 挽詩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아름답고 밝은 문장은 지금의 屈原이요, 추상같은 높은 절개는 옛날의 蘇武로다.”¹⁾ 그는 포로생활에서 탈출하여 귀국한 이후에도 죄인으로 자처하고 벼슬을 멀리한 채 스스로 불갑산에 갇혔다. 강항은 찾아주는 詩友들과 담론하는 한편 그의 문장과 기절을 흠모하여 찾아온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52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강항은 17세기 초반에 호남 유학을 이끈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간 강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문학과 『看羊錄』, 일본에 유학전수 등 몇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나, 강학활동은 깊이 있게 탐색되지 못하였다. 강항에 대한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되려면, 그에게 영향을 준 스승들, 교유한 친구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관련 유적과 유물들까지, 그 학문적 연관성을 폭넓게 탐구해야 한다.

3. 牛溪학맥의 계승

강항은 문과에 급제한 이듬해인 1594년(28세) 校書館 正字로 있을 때 경기도 파주로 牛溪 成渾을 찾아가 기호유학의 한 맥인 우계학맥을 계승한다.

◎ 安珣(晦軒) → 權溥(菊齋) → 李穀(稼亭) → 李穡(牧隱) → 鄭夢周(圃隱) → 吉

1) 尹舜擧, 『童土集』 「姜睡隱輓」, 黼黻明章今屈子 雪霜標節古蘇卿.

再(冶隱) → 金叔滋(江湖) → 金宗直(佔畢齋) → 金宏弼(寒暄堂) → 趙光祖(靜庵) →
成守琛(聽松)/白仁傑(休庵) → 成渾(牛溪) → 姜沆(睡隱) →

<안동교박사의 세미나 일부 자료참조>

<이은 강대의 수은 강항선생 일대기 일부자료 참조>

4. 문집의 편찬 및 간행

수은 강항은 평소에 자신의 저작을 정리해두지 않아 많이 散佚(산질)되었는데, 行狀(행장)에 의하면 남아 있는 저술로는 家人(가인)이 수집한 雲堤錄(운제록) 몇 권, 巾車錄(건거록) 1책, 「綱鑑會要(강감회요)」, 「左氏精華(좌씨정화)」, 「文選纂註(문선찬주)」 약간 권이 있었다고 한다. 이중 雲堤錄(운제록)은 시문집이며, 巾車錄(건거록)은 바로 看羊錄(간양록)으로 門人(문인)인 尹舜舉(윤순거)가 이름을 바꾸어서 정리하였다.

尹舜舉(윤순거)는 1654년 <看羊錄識(간양록지)>를 쓰고 다음 해 行狀(행장)을 지었으며, 이어서 金溝縣令(금구현령)으로 재직하던 중 저자의 시문과 看羊錄(간양록) 등을 편찬 정리하고 1658년 宋時烈(송시열)의 序文(서문)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하여 마침내 수은 강항의 문집들이 서서히 빛을 보게 되었다.